

윤장현 전략공천·姜李 연대 움직임 … 뜨거운 광주

〈강운태·이용섭〉

강운태·이용섭 “새정치 탈당·무소속 출마 … 단일화 추진”

안철수 ‘대권도전’ 시험대 … 국회의원 5명과 총력전 펼칠

Ⓢ 선택 6·4 지방선거 D-28

▶ 관련기사 2·3·4·5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면서 광주시장 선거판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윤 후보에 맞서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 시장과 이 의원의 단일화 결과가 향후 광주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 지도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윤 후보의 당선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새정치민주연합과 강(姜)·이(李) 후보 간 세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자기 사람 심기’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대권’을 바라보는 안 대표로서는 ‘광주 대첩’이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중대기로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밤 10시30분께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강 시장과 이 의원은 물론 당 안팎에서도 안철수 대표의 ‘지분 나누기’ ‘자

기사량 쟁기’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안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를 “권위적인 관료 리더십이 아닌 낮은 자세로 광주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윤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면서 촉발된 반발을 직접 나서서 일단락 짓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 측 지지자 250여명이 6일 집단 탈당을 한데 이어 옛 새정치연합 측과 일부 시민사회 단체 등도 전략공천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지난 5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앞에서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 시장과 이 의원 측도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며 세 확산에 나서고 있고, 무소속 단일화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이들의 단일화 작업이 주목된다.

반면 윤 후보를 전략공천한 안철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박혜자·장병완·임내현·강기정·김동철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도 윤 후보 당선을 위해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와 5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운명체’가 된 만큼 지방선거에서 윤 후보의 당선 여부가 국회의원 5명의 정치행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명의 국회의원들은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 보좌관 또는 비서관을 파견해 놓은 상태이며, 구청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의 ‘조직력’ 동원과 함께 조만간 일부 국회의원들이 윤 후보의 선대본부장 등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강·이 두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략공천을 강행한 안철수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도 광주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부처님오신날…佛心잡기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왼쪽)와 이용섭 국회의원이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인 6일 광주 무각사에 열린 봉축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합장을 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오른쪽)도 이날 오전 무등산 증심사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미래 비전 실종 … ‘당비 대납’ 의혹 판친다

새정치 전남지사 경선 사흘 앞으로

배심원단 토론 때 최대 이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남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정책 이슈는 실종되고 당비 대납 의혹 등 네거티브 이슈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전은 초반에 ‘반짝 정책 경쟁’이 펼쳐졌으나 당비 대납 의혹을 기점으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 측은 “이낙연 의원 측은 당비 대납 규모가 2만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불법을 떠나 규모면에서도 충격적이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의원 측은 “결론적으로 당비 대납은 없었으며 중앙당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경선 진행을 결정했다”며 “주 의원측도 당비 대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민의 시선은 굽지 않다. 전남도정을 이끌어 가야하는 전남지사 예비 후보들이 정책 마련에 총력을 쏟기 보다, 당원 경선에 대비해 당원들의 당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10일 펼쳐지는 배심원단 토론에서도 당비 대납 의혹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완도 해조류박람회 관람객

연휴 14만·전체 47만 돌파 11면

컬쳐&피플 작가 공지영 ▶17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Mercedes-Benz

LIRIKOS

마린콜라겐으로 팍 차오르는 피부-
고농축 탄력 앰플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앰플

주름만름이나 심각한 피부노화의 징조는 바로 탄력저하-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앰플은 농축하고 농축한 입도적 함량의
마린콜라겐이 무너진 피부에 힘있는 탄력을 채워드립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세뽀로 피부이력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리리코스 고객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